

文獻情報學의 形成論理

鄭 駟 謨*

<目 次>

- | | |
|------------------------|-----------------|
| I. 緒論 | B. 圖書館學의 概念과 範圍 |
| II. 情報에 대한 共通概念 | C. 情報科學의 概念과 範圍 |
| A. 情報概念의 諸說에 대한
再檢討 | D. 情報科學導入의 必要性 |
| B. 情報의 共通概念 | E. 情報의 單位와 媒體 |
| III. 文獻의 概念과 意義 | F. 情報의 發生量과 流通量 |
| A. 文獻의 語意 | G. 情報의 質과 價値 |
| B. 文獻의 여러가지 名稱 | H. 情報의 選擇과 効用 |
| C. 文獻의 意義 | I. 圖書館學과 그 缺陷 |
| IV. 文獻情報學의 形成論理 | J. 文獻情報學의 形成 |
| A. 文獻情報學의 名稱構成 | V. 結 論 |

I. 緒 論

圖書館學은 元來부터 그 本質과 體系가 問題가 되어, 오랜 동안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技術이나, 知識이나 하는 論議와 批判이 持續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까지도 客觀적으로 妥當한 圖書館學의 體系를 樹立하지 못하였다. 그 根本적인 原因은 理論의 貧困과 方法論의 非科學性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圖書館學은 近年에 急進적으로 發展한 情報科學에서 基本的인 理論과 科學의인 方法論을 導入할 수 있게 되므로써 새로운 理論의 體系化의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學은 그 學問名稱도 非論理的이며, 더구나 情報科學의 導入에 의한 새로운 論理體

* 中央校大學 圖書館學科 副教授

系로 形成될 學問名稱을 위해서는 더욱 不合理한 것이다.

그리하여 本考는 이를 「文獻情報學」으로 改稱하고 그 名稱의 構成과 學問體系의 形成에 따르는 論理的 根據를 다음과 같이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文獻情報學」의 名稱構成과 그 概念形成의 根據를 찾기 위해서, 情報에 대한 共通의 概念을 導出하고, 文獻에 대한 從來의 概念을 檢討하므로써 이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試圖한다.

둘째, 從來의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의 概要를 對比하고, 그의 共通性과 同質性을 찾아서 情報科學導入의 妥當性을 追求한다.

셋째, 實際的 社會的인 要求로서의 「文獻情報學」 形成을 위한 理論的 根據를 追求한다.

本考는 이러한 試圖으로써 「文獻情報學」의 形成과 그의 體系化에 一助코자 하는 바이다.

II. 情報에 대한 共通概念

A. 情報概念의 諸說에 대한 再檢討

從來의 情報의 概念에 대한 諸說을 筆者는 傳統의 概念, 行動科學의 概念, 情報理論의 概念 등 세가지 範疇로 區分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分析한 바 있다. 즉 그것은, 첫째, 情報에 대한 傳統의 概念은 “情報는 公知知識이다” 하는 말로 要約할 수 있다. 둘째, 行動科學의 概念은 “情報는 人間이나 生物體에게 주는 impulse 다” 하는 論旨로 表現할 수 있다. 셋째, 報情理論分野에서의 概念은 “情報는 人間과 人間 사이에 傳達되는 一切의 記號系列이다” 하는 말로 集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情報라고 하는 用語의 概念은 一定한 統一的인 意味를 가

1) 鄭駟謨.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 圖書館學報. 第2輯. 서울, 中央大學校 出版局, 1973, p.132~137.

지는 것이 아니라 情報과 관련된 領域에 따라서 相異한 概念으로 通用되고 있다.

그러나 以上の 情報의 諸概念을 면밀히 檢討해 보면 모든 分野에 共通되는 一元화된 概念을 發見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情報은 곧 知識이다” 하는 概念은 現代의인 觀點에서 볼 때, 論理的으로 不合理하다. 엄밀히 말하면 ‘知識’이란 客觀化된 認識이다. 이에 대해서 情報은 客觀化되기 以前의 認識對象이다. 예를 들면 ‘해(太陽)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知識(常識)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이 知識을 얻기 以前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東·西·南·北의 方位를 認識한 後에야 이 知識이 成立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해를 처음으로 보고 그것을 意識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情報이며, 東·西·南·北의 方位를 意識하는 순간 그것이 또 하나의 情報인 것이다.

또하나의 예를 들면 ‘地球는 太陽을 中心으로 그 周圍를 約 365日만에 한번씩 公轉하면서 約 24時間만에 한번씩 自轉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知識 또는 客觀化된 認識이다. 中學生이 이러한 知識을 가지자면 그 以前에 그는 地球, 太陽, 地球와 太陽과의 관계, 宇宙의 構成, 宇宙의 引力關係, 恆星, 衛星, 惑星, 自轉, 公轉 등등에 대한 事項을 認識해야 한다. 이러한 事項을 처음으로 認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斷片的인 認識對象이 情報인 것이다.

이와 같이 人間은 情報을 入手하면 이를 서로 관련시켜서 組織化하여 어떤 知識을 形成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과 知識을 동일한 概念으로 認識할 수는 없으며, 情報은 知識을 形成하는 要素 또는 要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行動科學의인 面에서 ‘情報은 人間이나 生物體에게 주는 impulse’라고 하는 것은 妥當한 概念이다. 그 理由는 어떠한 行爲나 行動을 中心으로해서 생각해 볼 때, 人間の 知覺에 의한 刺戟과 五官을 통

한 感覺的인 刺戟까지도 行爲나 行動의 原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人間의 行爲現象이나 그 過程을 생각해 볼 때, 몇가지 檢討해야 할 問題가 있다. 關英男씨가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의 行爲나 動作을 制御(control)하는 中樞司令源 또는 記憶部는 大腦이다.’²⁾ 人間에게 주어지는 모든 impulse 는 大腦의 司晷에 따라서 行爲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impulse 는 大腦에 集中되며, 大腦의 司晷에 따라서 行爲로 反映되므로 情報은 곧 人間의 大腦를 發動시키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大腦를 發動시키는 要因’이란 大腦로 하여금 認識 또는 知覺등의 思惟를 誘發시키는 要因을 말한다.

셋째로, 情報理論에 있어서 “情報은 人間과 人間 사이에서 傳達되는 一切의 記號系列이다” 하는 概念은 未洽한 點이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文字나 記號 등의 media 는 언제나 어떠한 意味를 內包한 것이며, 意味를 傳達하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므로 ‘情報은 人間과 人間사이에 傳達되는 一切의 意味’라고 解釋하였다.³⁾

여기에서 한거를 더 追求한다면, 人間이 어떤 意味를 받아드리는, 다시 말하면 意味를 認識하는 中樞는 頭腦의 記憶部이다. 그러므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情報은 人間의 頭腦와 頭腦사이에 傳達되는 意味 또는 認識의 要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情報理論에 있어서의 또 한가지, “情報란 不確實性を 除去하거나 減少시키는 것,” 또는 “情報은 確實性を 增進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概念規定은 엄밀히 檢討해 보면 論理的混沌을 發見할 수 있다. ‘不確實성을 除去하거나 減少시키는’ 그 主體는 情報自體가 아니라, 人間의 記憶部 또는 司令源으로서의 頭腦이다. 人間은 情報의 入手와 同時에 頭腦의 判斷作用(decision making)에 의하여 ‘不確實성을 除去하거나 減少시키고 또한 ‘確實성을 增進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問題의 對象을 把握하는 것이

2) 關英男, 情報科學と五次元世界.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 p. 50.

3) 鄭駙謨, *op. cit.* p. 136.

다. 그러므로 '情報은 人間의 頭腦 또는 어떤 生體나 自動制御機械의 中樞 司令源에 어떤 判斷의 要因을 提供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 情報의 共通概念

情報에 대한 從來의 諸概念을 以上과 같이 分析해 본다면 日本의 關英男씨의 情報에 대한 定義가 모든 分野에 共通될 수 있는 論理的인 妥當性を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關英男씨에 의하면 "情報란 有效한 行動이나 動作을 制御하는 司令源으로서, 그들의 制御中樞에 있는 記憶部에 어떤 새로운 寄與를 할 수 있는 原因이 되는 것"⁴⁾이라고 한다. 여기서 "有效한 行動이란 人間 또는 社會를 想定한 말이며, 有效한 動作이란 自動機械 혹은 automation 系를 想定한 말이다. 이러한 것에는 制御中樞가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司令에 따라서 有效한 行動 또는 動作을 하는 것이다. 물론 制御中樞에는 크든 작든 記憶部가 있어서 noise의 形式으로 情報를 蓄積할 餘地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그 以前부터 蓄積되어 있는 情報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蓄積된 情報만을 바탕으로 制御司令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情報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司令을 내리는 경우도 생각된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寄與를 할 수 있는 原因이 될 것이다. 만약 이미 蓄積되어 있는 情報와 같은 內容의 것이 入手되었다면, 그것은 하등의 寄與도 하지 않고 새로이 追加할 必要도 없으므로, 情報로서 採用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蓄積되어 있는 情報와는 다른 內容의 것이라 할지라도 問題가 되고 있는 系의 制御中樞로서는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 또는 興味가 없는 것은 情報가 아니고 noise 라고 하는 것이다."⁵⁾

以上은 關英男씨의 情報의 定義에 대한 그 自身의 解説이다.

4) 關英男, *op. cit.* p. 50.

5) *loc. cit.*

이와 같이 본다면 情報의 概念은 여러가지 論理로 表現될 수 있으나 그 概念이 一元化된 共通性和 妥當性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結論的으로 말한다면 ‘情報은 人間의 頭腦로 하여금 未知의 事實을 認識하게 하거나 새로운 發想 또는 創意를 誘發시키는 要因인 것이다. 이러한 認識, 知覺, 發想, 創意 등은 大腦의 作用으로서 이를 思考作用이라고 하며, 이러한 思考能力 또는 思考의 源泉을 知慧라고 한다. 그러므로 ‘情報은 知慧를 發動시키는 要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人間이 文獻에서 情報을 얻는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人間은 文獻에 記錄된 文字나 記號, 기타의 그림이나 圖表, 寫眞등을 視覺을 통해서 그 文字나 記號 등이 지니는 意味를 認識하여 知識을 이루며, 또는 여기에서 喜怒哀樂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未知의 事實을 認識하게 될 때는 認識의 度가 強해지며, 여기에서 새로운 發想이나 創意가 誘發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獻은 記錄된 潜在的인 情報이라고 볼 수 있다. 人間의 이러한 知的活動은 情報에 의한 知慧의 發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人間은 情報의 入手와 동시에 知慧의 發動에 의하여 認識, 知覺, 創意, 發想 등의 思考作用을 통해서 知識을 形成하며, 이 知識을 體系的으로 組織化하여 科學(學問)을 發展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情報 → 頭腦(知慧) $\left\{ \begin{array}{l} \text{認識, 知覺} \\ \text{創意, 發想} \end{array} \right\} \rightarrow 知識 \rightarrow 科學(學問).$

이와 같이 본다면 情報은 또한 知識의 要因인 동시에 科學(學問)의 要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研究者가 先行의 研究文獻에서 自己가 아직 알지 못했던 새로운 事實을 發見했을 때 그는 ‘좋은 情報을 얻었다’고 기뻐한다. 學者들은 이러한 情報을 基礎로하여 自己의 學問을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要約해서 말한다면 ‘情報은 人間의 모든 思考와 制御의 中樞司令源인 頭腦(知慧)에 어떤 새로운 思考와 制御活動의 要因을 提供하는 것이다.

Ⅲ. 文獻의 概念과 意義

A. 文獻의 語意

「文獻」은 「文」과 「獻」의 合成語이다. 「文」은 文句, 文章, 散文, 學問, 藝術, 書冊, 記錄, 文字, 禮樂制度, 法律, 善, 美, 德, 德惠, 仁德, 무늬, 빛깔, 模樣, 등 多様な 意味를 가진다. 그리고 「文」字의 構成은 象形과 指事에 속하는 것으로서, 筆劃이 서로 交錯하여 類에 따라 여러 가지 形態를 象形하는 意味를 나타낸 文字이다. 類에 의한 點에서는 指事이며 形態를 象形한 點에서는 象形이다.⁶⁾

「獻」은 獻上한다, 進行시킨다, 바친다(捧), 音樂을 演奏하여 祭祀를 지낸다, 王에게 物件을 바친다, 上奏하다, 王의 말을 받든다, 술을 손(客)에게 권한다, 나아간다(發), 祭祀를 지내는 物件, 마지한다, 가깝다, 善, 賢人, 儀, 본보기 등의 여러가지 意味를 가지고 있다.⁷⁾ 그러나 古代에는 「獻」字가 「賢人」이라는 意味로 많이 使用된 듯하다. 「書經」에서 禹가 舜임금에게 말하는 가운데,

임금님! 天下를 두루 밝게 하시어 海隅의 百姓들에게 까지 이르도록 하시면, 나라의 여러 어진 사람들이 모두 임금님의 臣下가 되려고 할 것이니 임금님께서서는 이들을 濫用해서서 忠言을 널리 받아드리고, 功을 百姓들에게 밝히고, 이를 수레(車)와 衣服같이 使用하면 누가 감히 謙讓하지 않겠으며, 누가 감히 公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⁸⁾

하는 句節이 있다. 여기에서 “萬邦黎獻”은 ‘나라의 여러 어진 사람’ 즉

6) 諸橋徹次著.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30~31 (1955~1956) 卷5-p. 560, 561.

7) *ibid.* 卷7, p. 759, 760.

8) 書經. 益稷. (帝 光天之下 至于海隅蒼生 萬邦黎獻 共惟帝臣 惟帝時舉 敷納以言 明庶以功 車服以庸 誰敢不讓 敢不敬應.)

‘賢人’을 意味한다.

이러한 ‘文’과 ‘獻’의 合成語인 文獻은 일반적으로 “文物制度의 典據가 되는 記錄”, “學術研究에 資料가 되는 文書” 또는 “옛날의 文物과 制度의 研究資料가 되는 冊” 등의 概念으로 通用되고 있다. 그러나 本來는 이것이 “典籍과 賢者”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일찌기 孔子가,

夏의 禮法을 내가 能히 말할 수 있으나, (그 後孫의 나라인) 杞에 대해서; 는 實證할 만한 것이 없으며, 殷의 禮法도 내가 能히 말할 수 있으나, (그 後孫의 나라인) 宋에 대해서는 實證할 만한 것이 없다. 이는 文獻이 不足한 탓이니 만약 文獻만 있다면 내가 能히 實證할 수 있으리라.⁹⁾

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文獻’은 “典籍을 뜻하는 ‘文’과 賢者를 뜻하는 ‘獻’과의 等位的 同心構造(coordination endocentric construction)의 合成語인 것이다. 그리하여 ‘文獻’의 ‘文’은 ‘記錄情報(record information)’를 가르키며 ‘獻’은 口啤情報(oral information)’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여기에서 ‘獻’字가 지녔던 本來의 概念은 점차 사라지고 現在는 ‘文’의 概念만이 남아서 ‘文獻’하면 ‘一切의 記錄된 情報’를 意味하게 된 듯하다.¹¹⁾ 그런데 本來 ‘文獻’이 ‘典籍과 賢者’를 意味하는 等位的 同心構造의 合成語로서 成立된 緣由와 그것이 現在에 와서 ‘獻’字가 지녔던 本來의 概念이 사라진 緣由를 다음과 같이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古代에 言語만이 發生하고 文字가 發明되기 以前에는 地域社會의 年老한 識者들은 그들이 記憶할만한 것은 모두 記憶하여 그것을 口啤語로

9) 論語, 八佾.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10) 李載喆. 集賢殿의 機能에 대한 研究. 人文科學, 第30輯.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3, p.130.

11) *loc. cit.*

12) Solomon, A.G. What is a Library. in Kaula, P. N. (ed.) *Library science today*. New York, Asia PublishingHouse, 1965, vol. 1, p.333.

傳授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書籍의 役活을 하였던 것이다.¹²⁾ 古代의 日本에는 文字가 輸入되기 以前에 官府에 ‘語部’라고 하는 專門的인 口啤傳授者가 있었다고 한다.¹³⁾ Illiad나 Odyssey도 本來 口啤語로 傳承되었던 것을 文字가 發明된 후에 Homer가 文字로 記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이와 같이 專門的인 口啤傳授者 또는 傳說이나 過去의 事實들을 잘 記憶하고 있는 有識한 사람은 文字가 發明된 후에도 상당히 오랜동안 存續되었을 것이다. 現在도 우리는 口啤에 의한 傳說을 가끔 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文字에 의한 記錄과 口啤傳授者가 並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의 文物과 制度를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記錄된 情報과 口啤傳授者가 전하는 情報를 함께 參考로 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記錄情報과 口啤情報’가 結合된 綜合的인 情報라는 意味로 ‘文獻’이라는 用語가 形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는 口啤傳授되던 情報는 거의 모두 文字로서 記錄되어 그것이 이미 記錄情報化하였으므로 口啤情報의 價値는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文獻’은 ‘學術的인 價値가 있는 一切의 記錄情報’를 意味하는 것으로 足할 것이다.

B. 文獻의 여러가지 名稱

人間의 情報傳達을 위한 手段과 方法의 發展을 일반적으로 情報革命이라고 한다. 이러한 情報革命은 言語의 發生, 文字의 發明, 情報記錄資料로서의 종이의 發明, 印刷術의 發明, 電信電話器의 發明, radio TV의 發明, teletype의 發明, 錄音器의 發明, computer의 發明…… 등등으로 그 發展的인 革命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情報革命 가운데 가장 뚜렷한 劃期的인 革命은 文字의 發明과 印刷術의 發明이라고 생각된다.

13) 壓司淺水. 書物のはなし. 東京, さえら書房. 1962, p.19.

人間은 文字를 發明해서 이를 어떤 記錄資料에 筆寫하여 情報를 傳達할 수 있게 되므로서, 口啤情報(oral information) 時代에서 記錄情報(recorded information) 時代로 轉換하게 된 것이다. 口啤정보는 情報의 發信者와 受信者, 또는 時間性과 空間性이 制限되어 있다. 그러나 文字나 記號로 記錄된 情報은 時間的으로 永久히 保存될 수 있고, 이를 自由로 運搬해서 遠距離까지도 미칠 수 있고, 이를 複寫해서 어떠한 場所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傳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慾望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記錄情報도 筆寫에 의한 것으로서 그 生産에 있어서 時間과 努力과 非正確性 때문에, 보다 經濟的이고 發展的인 記錄情報의 大量生産手段을 講究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印刷術의 發明이다.

印刷術의 發明과 普及으로 인해서 古代로 부터의 口啤정보와 筆寫記錄情報로서 傳授되었던 古典的인 情報들은 물론 새로운 文化의 創造的인 情報가 동시에 大量으로 生産되고, 그것이 널리 普及傳達되므로서 人類는 새로운 學術文化世界를 形成하게 되었으며 印刷記錄정보는 人間의 思想, 感情, 情緒, 行動, 經驗, 科學 등에 관한 거의 모든 情報를 傳達하는 傳統的인 媒介資料가 된 것이다. 그리고 筆寫記錄정보이던 印刷記錄정보이던 그것이 學術的인 價値가 있는 것은 이를 總稱하여 일반적으로 文獻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東洋에 있어서 文獻은 그 記錄資料에 따라서 또는 文獻의 形式이나 內容에 따라서 歷代로 여러가지 名稱이 形成되었다. 古代에는 冊, 典, 竹帛, 志, 記, 傳, 書 등이 記錄情報資料의 通稱이었다.

‘冊’은 古代의 主된 筆寫資料이던 竹簡을 엮은 모양을 象形한 것이라고 하며, ‘典’은 冊床위에 冊을 올려 놓은 모양을 象形한 것이라고 한다.¹⁴⁾

14) 屠萬里, 昌彼得共著. 沈暁俊譯. 圖書板本學要略. 서울,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1975, p. 15.

‘竹帛’도 古代의 記錄類의 名稱인 바, “竹은 竹簡을 말하고, 帛은 絹織物을 뜻하며, 이는 衣服을 만들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다. 다만 竹단을 말할 때에는 簡冊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옛 사람들은 竹帛 두字를 합쳐서 말해 왔던 것이다.¹⁵⁾

‘志’는 記錄을 意味한다. 古人들은 이것을 항상 圖書의 通稱으로 써 왔다.¹⁶⁾

‘記’는 志와 뜻이 通하므로 書는 志라고도 할 수 있으며, 記라고도 할 수 있다. ‘記’는 보통 圖書를 指稱한다.¹⁷⁾

‘傳’은 經을 解釋한 것을 意味하며, 行實을 記術한 글도 또한 傳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秦漢以來의 概念이요, 그 以前에는 ‘傳’字로서 圖書를 通稱하였다.¹⁸⁾

‘書’도 記錄類의 通稱인 바 最初의 書字의 뜻은 書寫한다는데 있었고 그후에는 竹帛에 쓴 것을 書라 하여, 動詞로부터 名詞로 變換한 것이다. 그리고 書字가 圖書의 汎稱으로 된 것은 늦어도 戰國 初葉부터 시작된 것이다.¹⁹⁾

기타에도 記錄類의 通稱으로는 典籍, 書冊, 書策, 書籍, 圖書, 文, 文籍, 圖籍, 卷, 卷物, 書物, 文物, 文書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春秋 戰國時代를 前後해서 부터 사용된 듯하다.

C. 文獻의 意義

文獻 혹은 記錄情報가 어떠한 資料에 記錄된 것이던, 또는 어떠한 名稱으로 불리워지던, 그것이 그다지 重要的 問題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도 文獻이 우리 文化社會에 있어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냐 하는

15) *loc. cit.*

16) *ibid.* p. 16.

17) *ibid.* p. 17.

18) *loc. cit.*

19) *ibid.* p. 15~18.

것이 더욱 重要的 것이다.

日本の 植村長三郎은 文獻의 一種인 圖書에 대해서 “圖書란 筆寫 또는 印刷된 論著, 그리고 續刊되는 것으로서 數枚의 紙葉이나 其他의 材料로 엮은 內容의 全體를 合綴한 것”²⁰⁾이라고 定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文獻에 대한 外形的 또는 象形的인 定義에 不適當한 것이다. 文獻을 이와 같이 象形的인 觀點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며, 文獻의 存在意義를 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文獻의 本質的인 意義는 그것이 지니는 知的인 內容 또는 情報에 있는 것이다. 人類가 最初에 文字를 發明한 것도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 情緒, 行動, 經驗 등 모든 情報를 他人에게 傳達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發明한 것이며, 現代의 모든 文獻도 文字나 記號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情報를 傳達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文獻에서 거기에 收錄된 文字나 記號가 지니는 情報를 除去하면 그 文獻은 全然 無意味한 物體에 不適當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獻이란 종이나 其他의 資料에 文字나 記號 등의 共通의 Symbol을 통해서 어떤 情報(意味)를 지니게 하여 他人이 그 情報를 解得하게 하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다.

Thomas Carlyle은 文獻에 관해서 “人類가 이룩하고 생각하고 收得하고 保存해온 모든 것, 그것은 冊의 面에 神奇하게 保全되어 실려 있다”²¹⁾고 했으며, Helen E. Haines는 “圖書는 知性的의 그릇이다. …… 數冊記에 걸친 思考와 努力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永續的인 知識의 資料가 우리에게 有用하도록 書籍 속에 貯藏되어 있다”²²⁾고 하였다. 여기에서 Carlyle이 말한… “모든 것”…, 그리고 Haines가 말한

20) 植村長三郎. 書誌學辭典. 京都, 教育圖書株式會社, 昭和17(1942). p. 378.

21) Carlyle, Thomas.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The world's classics, no. 62). London, Oxford Univ. Press, 1904, p. 210 (All that mankind has done, thought, gained or been; it lying as in magic preservation in the pages of books.)

22) Haines, Helen E. *Living with Books: the art of book selection*.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0, p. 3, 4.

“知識의 資料...”는 모두 情報를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獻은 人類가 代代로 이룩하고 생각하고 經驗한 人間의 모든 情報가 文字나 記號 등의 共通의 symbol을 媒介로 면밀히 記錄되어 누구에게나 傳達되도록, 그리고 그 情報가 有用하게 活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文獻과 情報와의 關係는 마치 文獻이 飲食物이라면 情報는 飲食物 속에 包含된 營養素와 같은 것이다.

우리 人類는 이 文獻을 通해서 우리 直前까지의 文化를 물려받고 또 다시 새로운 創造를 加하고 文化를 더욱 擴充해서 追加蓄積하여 當代 또는 後代에 繼承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知的 情報活動의 傳達과 發展, 즉 情報循環(cycle of information)의 連續이 現代의 文明社會를 이루는 것이며 앞으로의 無限한 發展이 豫期되는 것이다.

IV. 文獻情報學의 形成論理

A. 文獻情報學의 名稱構成

前述한 바와 같이 ‘情報’는 人間의 모든 思考와 制御의 中樞司令源인 頭腦(知慧)에 어떤 새로운 思考와 制御活動의 要因을 提供하는 것으로서, 知識의 要素인 同時에 科學(學問)의 要因이 되는 것이며, 文獻은 記錄 情報를 收錄하고 있는 資料이다. 그러므로 一般의인 낱말 構造方式으로 본다면 ‘文獻情報’라는 用語는 ‘記錄情報의 情報’라는 概念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文獻情報’는 形式的으로는 ‘文獻’과 ‘情報’를 複合하여 造成한 말이라 할지라도 事實에 있어서는 ‘文獻情報學’은 從來의 이른바 圖書館學과 現代에 急進의으로 發展한 情報科學을 結合시키는 概念

(Books are the instruments of intelligence. ...the enduring materials of knowledge, prepared for us through centuries of thought and labor, are stored for our use in books.)

으로造成된 學問名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從來의 圖書館學을 왜 ‘文獻’이라고 하는 말로 代置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며, 둘째로는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을 왜 結合시켜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첫째, 圖書館學을 ‘文獻’이라는 用語로 代置시킨 理由는, 圖書館學은 圖書館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文獻에 關係된 모든 問題 즉 “文獻의 認識, 蒐集, 整理組織, 運用”에 關係된 問題를 研究하는 科學으로서 本來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名稱自體가 非論理的이며, 「圖書館學」이라는 用語와 ‘情報科學’이라는 用語를 그대로 結合시킬 경우 名稱이 갈 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을 結合시켜야 할 理由에 대해서는 우선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의 本質과 그 概要 및 相互關係가 說明되지 않으면 이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의 概要를 說明하고 이들의 相互關係와 融合의 必然性を 論述하고자 한다.

B. 圖書館學의 概念과 範圍

ALA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圖書館學이란 印刷 또는 書寫된 記錄類의 認識, 蒐集, 組織, 利用에 關係한 知識 및 技術”²³⁾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圖書館學은 圖書館의 資料를 中心으로 한 그 認識, 蒐集, 組織, 利用에 關係한 圖書館에서의 實務活動에 必要한 知識 및 技術’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이것은 그 ‘知識 및 技術’을 學問이라고 規定할 수 없는 限 論理的인 矛盾이며, 圖書館學이 體系的인 科學이 아니라는 것을 自處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30餘年前에 規定한 것으로 그 定義만을 가지고 圖書館學의 學問으로서의 成立與否를 論할 것이 아니라, 圖書館學을 學問이나 科學으로 自負하는 限, 이 定義는 修正되어야

23)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

만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圖書館學은 印刷 또는 手書된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用하는 知識 및 技術”²⁴⁾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ALA의 定義를 그대로 踏襲한 것이다. 다만 ALA의 定義에서 “記錄類라는 말을 ‘文獻’이라는 用語로 代用했고, ‘利用에 관한’이라는 말을 ‘運用하는’이라는 말로 代用했을 뿐이다.

其他에도 圖書館學에 대한 定義가 여러가지로 表現되고 있으나 거의 이와 類似하다. 그리하여 以上の 두 定義를 科學으로서의 論理가 成立할 수 있도록 修訂하면, ‘圖書館學은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實際의인 또는 現狀論의인 定義라고 볼 수 있다.

한편 本質論의인 立場에서 볼 때는 “圖書館學은 教育和 調查研究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게하는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²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教育和 調查研究’의 窮極의 目的은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에 있으므로, 目的論의인 立場에서는 “圖書館學은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을 위한 條件造成의 原理와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²⁶⁾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實際的인 面에서 圖書館學의 內容을 살펴보면 圖書館學에서 는 첫째, ‘文獻을 認識하기 위한 方法’과 관련해서 「圖書 및 圖書館史」, 「書誌學」, 人文社會科學이나 科學技術分野 등의 「主題別書誌」또는 「參考文獻」등을 研究하고 있으며, 둘째로, ‘文獻을 蒐集하는 方法’과 관련해서 「典籍」의 理解나 「書評」또는 「圖書選擇」을 研究하고 있다. 셋째로, ‘文獻을 整理組織하는 方法’과 관련해서 「分類法」, 「目錄法」, 「古書編目法」, 또는 「資料組織論」을 研究하고 있으며, 넷째로는 ‘文獻

24)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用語集. 서울, 圖協會, 1966.

25) 鄭駱謨.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中央大學校論文集, 第14輯. 서울, 中央大學校, 1969, p. 78, 79.

26) *ibid.* p. 79

의 效果的인 運用方法'과 관련해서「圖書館組織管理論」, 또는「圖書館運營論」을 研究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科學을 綜合하여「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名稱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른바「圖書館學」은 그 內容이나 性格으로 보아 施設이나 機關으로서의「圖書館」을 주된 研究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內容은 '文獻의 認識, 蒐集, 整理, 組織 및 文獻의 運用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므로, 本來「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名稱은 不合理的하게 命名된 것이다.

C. 情報科學의 概念과 範圍.

美國의 情報科學會 會長인 Robert S. Taylor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本質(property)과 行態(behavior),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要因 및 最適의 接近성과 利用性を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processing)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²⁷⁾이라고 한다. 그리고 Taylor는 “情報科學은 情報의 發生, 蒐集,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련된 知識의 總體를 다룬다”²⁸⁾고 한다. H. Borko도 Taylor의 理論에 따르고 있다.²⁹⁾

또한 北川敏男씨를 비롯한 日本의 情報科學者들은 “情報科學은 機械,

27) Taylor, R.S.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C.A. Cuanda (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Information Science is that discipline that investigates the properties and behavior of information, the forces governing th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means of processing information for optimum accessibility and usability. 28) *loc. cit.*

(Information science is concerned with that body of knowledge relating to the origination, collection, organization, storage, retrieval, interpretation, transmission transform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29) Borko, H. Information science; What is it? in *Keypapers in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C. ASIS. 1971, p.1. (Reprint from *American Documentation*. January. 1968, p.3-5.)

生體,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情報의 發生, 傳達,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一般의 原理를 究明하는 새로운 學問分野³⁰⁾라고 한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의 Taylor와 Borko의 情報科學에 대한 定義와 北川를 비롯한 日本學者들의 定義는 그 表現方法이 다르다. 그리고 이 兩者의 定義는 根本的으로는 內容上的 差異點은 없으나 觀點에 있어서 약간의 混純이 있다고 생각된다.

Taylor 등의 情報科學의 定義를 檢討해 보면, “情報의 本質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그 本質을 이룰 수 있는 屬性이 問題가 되며, 情報의 行態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現象이 問題가 된다. 그리고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processing)하는 手段’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그 具體的인 事項이 ‘情報의 蒐集,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련된 問題이며, 이러한 手段이 結局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手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重複된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北川 등의 定義를 檢討해 보면, ‘情報의 發生問題, 즉 情報가 어떻게 發生하느냐 하는 問題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屬性과 本質이 무엇이나를 究明하는 것이 前提가 되며, ‘情報의 傳達’問題는 情報의 現象과 行態가 어떠한 것인가를 究明하는 것이 前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情報科學에서는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一般의 原理뿐만 아니라, Taylor가 말한 바와 같이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한 모든 問題가 그 研究對象이 되며, 그 目的은 情報의 效果的인 利用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科學은 ‘情報의 效果的인 生産과 傳達 및 效用을 위한 手段을 研究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을 整理해 보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屬性과 本質, 그 現象과 行

30) 北川敏男. 情報科學의 視座.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1970, p. 3, 4.

情報化社會事典. 東京, 毎日新聞社, 1971, p. 56, 57.

大泉充郎. 情報科學의 期待. 東京, 計測制御學會, 1965. 10. v. 4, no. 10, p. 653-4.

態 및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그리고 보다 實際的인 表現으로는 情報科學은 '情報의 效果的인 生産과 傳達 및 그 効用을 위한 蒐集, 蓄積, 處理手段을 研究하는 것'이며, 그 大前提는 情報를 善用하므로써 學術과 文化의 效果的인 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것이다.

D. 情報科學導入의 必要性

前述한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의 概要를 對比해 본다면 圖書館學에 있어서의 "文獻(記錄情報)의 蒐集, 整理, 組織, 運用"에 대한 研究分野는 情報科學에 있어서의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에 대한 研究分野와 實際에 있어서 對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情報科學은 "情報의 發生과 傳達" 또는 情報의 本質이나 屬性등의 源泉의인 分野까지 그 研究範圍에 包括된다는 것이 圖書館學의 範圍와의 差異點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情報科學은 圖書館學보다 研究範圍가 넓다고 볼 수 있다.

圖書館學과 情報科學과의 根本的인 差異點은 '文獻(또는 情報)의 認識, 蒐集, 蓄積, 處理'에 있어서, 圖書館學은 이미 體系化된 一般的인 圖書에 관련된 問題를 主要한 研究對象으로 하는 反面에, 「情報科學」에서는 주로 最新의 學術的인 그리고 斷片的인 情報資料에 관한 問題를 對象으로 했다는 點인 것이다. 또한 圖書館學은 주로 手動的인 方法論이라고 볼 수 있는 反面에, 「情報科學」은 주로 科學的 機械的인 方法論이라고 볼 수 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學」은 一般的 大衆의인 情報問題를 對象으로 한 手動的인 方法論이며, 「情報科學」은 最新의 學術的·斷片的인 情報問題를 對象으로 한 科學的·機械的인 方法論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 兩者는 어떠한 情報이던 情報에 관한 問題를 對象으로 한다

는 면에서는 共通하므로 結果의으로는 各々 研究範圍와 方法論이 다르다. 그러나 目的論的인 立場에서 볼 때 兩者 共히 “學術과 文化의 效果의인 發展을 위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한 學問”이라는 點에서 目的이 一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同一한 本質과 同一한 目的을 가지고 있으면서 方法論을 달리하는 두가지 體系의 學問은 相互의 融化가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圖書館學」의 경우는 本來 理論의 貧困과 科學性的 貧弱때문에 「情報科學」의 理論과 方法論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에서는 “既存 圖書館學 課程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몇몇 情報科學課程을 追加하거나”, “情報科學의 原理가 傳統的인 圖書館學科 目에 關聯이 있으면 編入하고 또한 새로운 科目을 新設하여 圖書館學校의 全課程을 再編成하고 있는 것이다.”³¹⁾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趨勢에 並行하여 이와 동일한 方法을 採用하고 있다는 것을 延世·梨花·中央·成均館의 4個大學 圖書館學科 教科課程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日本의 唯一한 學部 4年制 圖書館學科가 있는 慶應大學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우와 對等한 方法으로 教科課程을 再編成하고 學科名稱도 「圖書館情報學科」로 改稱하였다.

上述한 바와 같이 從來의 「圖書館學」은 近年에 이르러 「情報科學」과 融化一路에 있으며, 그 學問名稱도 이의 複合된 概念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名稱으로 改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R.C. Swank는 “情報科學은 圖書館學의 한 擴張”³²⁾이라고 했으나, 情報科學은 本來 圖書館의 情報處理를 위해서 發生한 것이 아니라 科學技術分野에서 軍事의 目的을 위해서 開發된 것이다. 그러나 그

31) Asheim, L.E. 專門職教育 및 人事交流問題. 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亞細亞大洋地域圖書館國際會議報告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61

32) Swank, Raynard C.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in *Special Libraries*. January, 1967, p. 41.

와 方法의 適用範圍가 多樣하기 때문에 圖書館의 情報處理에도 應用될 수 있는 것이며, J.H.Shera가 指摘한 바와 같이 “情報科學은 圖書館業務의 實際를 위한 理論의 根據가 되는 것”³³⁾으로 圖書館學에서 이를 導入하는 것이다.

또한 「情報科學」의 理論과 方法論의 導入이 곧 圖書館學의 擴張이 아니라 情報科學의 理論을 根據로한 새로운 體系化와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에 「文獻情報學」의 形成을 위한 試論을 提示하고자 한다.

D. 情報의 單位와 媒體

現代를 일컬어 情報의 洪水時代, 情報의 爆發時代, 또는 情報化社會라고 한다. 이것은 現代에 있어서는 情報의 生産量이 너무나 龐大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情報은 本質의으로는 形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數量的으로 表現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들어와서 情報의 量을 測定하는 方便으로서 bit 라고 하는 情報의 最小單位를 開發하여, “專門的으로는 이 bit 에 의해서 情報量이 測定될 수 있다. 이 情報單位는 1928년에 Hartley 가 開發한 것으로, 通信理論에 있어서 送信하고자 하는 情報을 表現하는 通信文의 字數와 實際로 信號로써 送信해야 할 符號의 symbol 數와의 關係를 나타내는 量으로서, 이 量은 通信文의 內容이 기쁜것이건 슬픈것이건 一切 無關하며, 다만 文章에 나타난 文字의 統計에만 關係한다. 그리고 平均情報量은 情報의 意味와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³⁴⁾ 한편 情報은 반드시 어떤 media 에 의해서 傳達되며 또한 그 media 를 收錄하는 媒介體에 의해서 傳達되기 때문에 이러한 媒介體에 의해서 數量化 할 수 있다.

情報의 基本的인 media 는 우선 音聲이나 言語, 文字나 記號, 또는

33) Shera, Jesse H.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12, 1968, p. 65.

34) 關英男, 情報科學と五次元世界.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 p. 37.

圖形이나 色彩 등이며, 이러한 media 를 收錄하여 媒介하는 資料는 실로 多様하다. 古代에는 甲骨, 石版, 竹簡, 木版, 樹皮, 粘土板, 柘葉, 獸皮, papyrus, 象牙, 陶器, 綿布, 絹布, 金屬版 등을 使用해서 여기에, 情報로서의 文字나 記號 등을 筆寫하거나 印刷하여 傳達하였다. 그후 AD 105년에 종이(紙)가 發明되어 그것이 널리 世界的으로 普及되자 數百年동안 이것이 거의 唯一한 情報의 筆寫資料가 되었으며, 印刷術이 發明되자 거의 大部分의 主要한 情報은 印刷된 記錄物로 傳達되었다. 그러나 現代에 들어 와서는 化學紙, 電信機械, 電話, radio, television, 磁性 tape, teletype computer 등의 發明으로, 모든 情報은 音聲이나, 文字, 記號, 映像, 錄畫 등에 의해서 自由自在로 傳達될 수 있게 되었다.

E. 情報의 發生量 과 流通量

한편 人類의 歷史 以來 主要한 情報은 無限히 幾何級數의으로 增加하면서 生産되어, 上述한 바와 같은 多様な 媒介資料에 의해서 傳達되고 그것이 累積되어왔으며, 現代에는 그것이 더욱 爆發的인 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古代부터 現在까지 生産된 情報資料의 量은 天文學的인 數量으로서 現實의으로는 正確히 把握할 수 없으나, 現在 情報가 生産되어 流通되는 量은 어느 程度 그 윤곽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個人生活에 있어서의 對話나 學校教育에 있어서의 講議 등에 의한 情報傳達量은 거의 測定할 수 없으나, radio나 television의 放送에 의해서 傳達되는 情報量은 1分間에 300文字(announcer가 말하는 標準速度)를 基準으로 計算될 수 있다.

그러나 radio나 television에 의한 情報은 事業上에 있어서나, 人間의 知識을 形成하는데 있어서나 學問上의 價値는 거의 없는³⁵⁾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印刷物에 의해서 傳達되는 主要한 情報量만을 살펴 보기로 한

35) 額田巖, 成田寅彦. 知識産業社會. 東京, 產生能率短期大學出版部, 1971, p. 23.

다. 그리하여 世界的으로 生産되는 新聞과 雜誌 및 一年間에 生産되는 書籍의 公認된 種數를 살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1965 年度 基準		1968 年度 基準	
書 籍	430,000 種	460,000 種	
新 聞(日刊)	7,855 種 ³⁶⁾	8,495 種 ³⁷⁾	
雜 誌		50,000 種 ³⁸⁾	

한편 日本의 工學博士 額田씨등은 全世界의 新聞 雜誌 書籍에 收錄되는 一年間の 情報量을 約 4200兆字로 推算하고, 이와 같이 發散되는 情報量 가운데 444兆字만을 讀者들이 入受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發散하는 情報量の 約 10%만이 入受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入受된 情報 가운데 實際로 利用되는 情報量の 比率을 10%로 假定하면 發散되고 있는 情報量에 대해서 利用되는 情報量은 1%에 不過하다고 한다.³⁹⁾

F. 情報의 價値

人間과 動物을 本質的인 面에서 比較해 볼 때, 人間이 動物과 다른 點은 動物은 物質的인 energy 의 充足만으로 生을 享有할 수 있는데 比하여, 人間은 物質的인 energy 의 充足만으로는 生을 享有할 수 없으며, 이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精神的인 energy 의 充足과 그 活用에 있다. 人間の 物質的인 energy 는 動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飲食物 가운데의 營養素를 攝取함으로써 形成되며, 精神的인 energy 는 주로 人間の 思考 活動과 敎育과 研究開發등에 의해서 生産된 精報를 入受함으로써 形成된다고 볼 수 있다. 人間은 이러한 精報를 얻어서 知識과 知慧를 形成

36) 國際連合世界統計年鑑. (日本語版), 東京, 原書房, 1967, p.756~764.

37) *ibid.*, 1970, p.783~795.

38)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4th ed.) New York; 1971. (年刊 및 不定期刊行物は 包含되지 않음).

39) 額田巖, 成田寅彦, *op. cit.* p.24~25.

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보다 向上된 知慧를 끊임없이 發展시키고, 이를 體系化하여 科學(學問)을 發展시켜 왔으며, 이를 人間에게 有用하게 活用하므로써 個人的 生活을 享有하고, 社會的으로는 文化나 文明을 發展시켜 왔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人間の 生活樣式이나 風習의 改善, 社會制度나 環境의 改善, 日常生活에 便利하게 利用되는 電氣나 radio, television, 自動車나 汽車, 飛行機, omputer 등 모든 文明의 利器는 情報에 의해서 形成된 人間知慧의 所産이다. 그러므로 物質的인 energy가 人間の 第1次元的인 energy라고 한다면 情報은 人間の 第2次元的인 energy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人間の 第2次元的인 energy로서의 情報의 價値, 또는 情報에 의해서 形成된 知識이나 技術 또는 知慧의 價値가 認定되고 그것이 重視되므로써, 現代에는 이러한 教育活動이나 情報活動 또는 研究活動의 分野를 知識産業 또는 情報産業이라고 하는 用語로 表現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美國의 經濟學者 Kenneth E. Boulding 은 情報나 知識 技術등 人間の 모든 知慧를 高次元的인 財貨로 보아야 하고, 이를 經濟學的인 研究對象으로 삼아야 할 중요하고 새로운 開拓分野라고 主張하고 있으며,⁴⁰⁾ 日本의 額田巖 등도 “現代의 商品은 形態가 있는 物的인 財에서 形態를 가지지 않는 無形의 財에로 점차 重點을 移讓해 가고 있다”⁴¹⁾고 한다. 여기에서 “形態를 가지지 않는 無形의 財”란 情報나 知識 또는 人間の 知慧를 意味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新聞이나 雜誌나 圖書등의 文獻을 購入하는 경우 新聞이나 雜誌나 圖書 그 自體의 物質的인 商品價値로 因해서 그것을 購入하는 것이 아니라, 本質的으로는 그러한 資料 속에 담겨진 情報나 知識을 入受하기 위해서 購入하는 것이다. 또한 日本의 關英男씨가 말한

40) Kenneth E. Boulding.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1 (1969), p. 1-12.

41) 額田巖, 成田寅彦, 知識産業社會. 東京, 産業能率短期大學出版部, 1971, 序文.

바와 같이 “教育은 人間의 頭腦에 情報를 組織的으로 傳授하는 手段”⁴²⁾ 이라고 본다면 教育者에게 支拂되는 報酬는 그들의 勞動의 代價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傳授하는 情報에 대한 代價로서 支拂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産業스파이가 生産을 위한 技術情報를 高價로 買賣하는 것이나, 特許所有權者가 特許를 買賣하는 것은 情報의 買賣이므로 情報가 商品 價値도 가지는 것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G. 情報의 選擇과 効用

그러나 모든 情報가 人間 누구에게나 價値가 있고 必要하고 有益한 것은 아니다. 日本의 額田巖씨가 말한 바와 같이 “情報 가운데에는 ① 有益하고 必要한 情報가 있는 反面에, ② 無意味하고 無價値한 情報도 있으며, ③ 不必要하고 有害한 情報도 있다. 無責任한 情報의 發散은 우리 人間事를 阻害하고 또한 情報過多에 의한 impact는 neurose 誘發의 原因이 된다”.⁴³⁾ 그러므로 人間의 社會的活動에 있어서는 有益하고 必要한 情報 만을 選擇하여 이를 活用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重要하다는 것을 再三 明確하게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人間의 知慧의 尺度는 ‘有益하고 必要한 情報’만을 迅速하고 正確하게 入受하여, 이를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能力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文化의 發展이나 文明의 發展, 또는 社會의 發展이나 國家의 發展도 情報의 効用 如何에 따라서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前項에서 밝힌 바와 같이 現在 世界的으로 新聞, 雜誌, 書籍에만 收錄되는 一年間の 情報量이 約 4200兆字로서, 이 가운데 444兆字만을 讀者들이 入受하고, 이 入受된 情報 가운데 實際로 利用되는 情報量은 그 1%인 約 44兆字에 不過하다면, 이 非能率의인 情報의 管理에 대

42) 關英男, 情報科學と五次元世界.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 p. 101.

43) 額田巖, 成出貢彦, *op. cit.* p. 26.

해서는今後 情報의 發生·加工側에서나 또한 情報의 受入側(利用者)에서 어떠한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그대로 放置한다면 情報公害로 進展할 수 밖에 없다. 情報公害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無益한 情報은 規制하고 玉石混淆 가운데 必要한 情報만을 選別해 내는 技術의 開發등이 要望된다.⁴⁴⁾

H. 圖書館學과 그 缺陷

그리하여 人間은 일찌기 潜在的인 情報로서의 文獻을 蒐集해서 이를 學問的인 體系나 主題에 따라서 分類·排列하고, 이에 따라 目錄을 作成하여 利用者로하여금 많은 文獻가운데 自己가 必要로하는 情報를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하는 方法을 講究해 왔다. 이러한 事業을 爲 主로 專擔해온 機關이 現在의 圖書館이며, 이러한 手段과 方法을 發展시켜온 學問이 이른바 ‘圖書館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圖書館이나 圖書館學에서는 주로 從來의 傳統的인 文獻으로서의 圖書의 效用을 爲 主로 하고 非專門的인 一般利用者를 위한 情報와 教育的인 面에 관한 情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수한 專門分野의 學者나 技術者들의 尖端的인 研究開發을 위한 情報效用에 대한 關心은 不足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19世紀 末期 科學技術과 學問은 계속적으로 發展하여 分化하고 專門化하였으며, 이와 같이 專門化됨에 따라서 專門分野에서 相互間에 傳達를 必要로 하는 文獻들이 急速度로 生産되고 擴大되어갔다. 專門的인 學者나 技術者들이 研究開發을 위해서 必要로 하는 情報은 이마 體系화된 大衆的인 文獻이나 教育的인 文獻보다도 주로 특수한 專門的인 文獻과 當該主題分野의 最新의 先行 研究文獻으로서, 斷片的인 情報를 要求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圖書館의 一般的인 分類方法이나 目

44) 額田巖, 成田寅彦. *op. cit.* p.24—25.

錄에 의해서는 그 要求가 充足될 수 없었던 것이다. 圖書館學은 本來 그 名稱自體도 非論理的이었으며, 그 큰 缺陷은 上述한 바와 같이 특수한 專門分野의 學者나 技術者들의 情報効用に 관한 問題를 注視하지 못 한 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특히 科學技術分野나 醫學分野에서는 각각 自己分野에 있어서의 有益하고 必要한 情報를 相互間에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이 當該主題分野의 文獻가운데 주로 學術的인 論文集이나 專門的인 研究誌(journal) 또는 特許文獻 가운데 收錄된 必要한 情報를 迅速하고 正確하게 檢索하기 위한 索引法을 發展시켜 왔으며, 近年에는 computer 에 의한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 및 檢索方法을 開發하여, 大部分의 情報効用活動을 computer 에 依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分野를 情報科學이라고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代의 大規模의 圖書館에서는 從來의 圖書館學的인 側面과 近年에 急速히 發展한 이른바 情報科學的인 側面을 同時에 活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美國의 많은 專門的인 圖書館들이 一般的인 圖書에 대해서는 從來의 分類法이나 目錄法에 의해서 文獻을 整理하는 한편 專門的인 journal 이나 特許文獻등에 대해서는 computer 에 의해서 情報를 蒐集, 蓄積, 處理하고 檢索하는 system 을 使用하는 것이 그 現實的인 例라고 볼 수 있다.

I. 文獻情報學의 形成

本質的인 論理에서 생각할 때 文獻은 그것이 圖書의 形態를 가춘 것이던 journal 이던, 또한 어떠한 形態로 生産된 또는 어떠한 目的을 위해서 生産된 文獻이던, 그것이 潜在的인 情報를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는 秋毫도 다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種類의 文獻에 收錄된 情報를 가장 效果的으로 活用하도록 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分野는

同一한 範疇內에서 또는 同一한 體系下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研究分野를 包括하고, 이를 代表하는 學問의 名稱을 “文獻情報學”이라고 하는 것이 論理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文獻情報學은 從來의 圖書館學에서 다음과 같이 그 性格과 內容이 變換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文獻情報學은 圖書나 기타의 記錄資料에 대한 物質的인 概念을 벗어나서 情報이라고 하는 그 本質을 重視하고 그 效用을 目標로하는 觀點으로 轉換해야 할 것이다.

둘째, 文獻情報學은 情報理論을 基礎로한 새로운 理論體系와 方法論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셋째, 從來의 「圖書 및 圖書館史」는 「情報傳達手段의 發展史」를 包括해서 보다 廣範하게 研究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從來의 「參考業務」와 「主題別書誌」는 「情報調查論」 또는 「主題情報調查論」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調查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從來의 「圖書選擇」은 「情報資料選擇」이라는 觀點에서 보다 廣範하게 調查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分類法이나 目錄法 또는 資料組織論分野는 情報檢索論이 追加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從來의 「圖書館運營」은 圖書館이 「情報 System」이라는 觀點에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文獻情報學」은 知識이나 科學의 要因으로서의 情報의 效果的인 利用과 이로 因한 發展의인 새로운 情報의 生産을 위해서, 이미 發生된 情報資料를 認識하고 蒐集, 組織, 蓄積, 運用하는데 관한 效果的인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할 수 있다.

V. 結 論

前述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情報의 共通概念은 ‘人間의 모든 思考와 行動의 中樞司令源인 頭腦에 어떤 새로운 知覺과 思考의 原因을 提供하는 것으로서, 知識의 要素인 동시에 科學(學問)의 要因이 되는 것이다.

2. ‘文獻’은 本來 ‘典籍과 賢者’라는 意味로 사용되었던 바 이를 現代的인 概念으로 解釋한다면 ‘典籍’은 記錄情報이며, ‘賢者’는 口碑情報로서 이는 綜合的인 情報를 意味한다. 그러나 現代에는 이것에서 ‘口碑情報’라는 概念은 사라지고 ‘記錄情報’의 概念만이 남아 있다.

3. 現代的 爆發的인 情報生産量 가운데 最良의 情報를 最適의 多數에 效果의 利用하게 하므로써 情報의 公害를 豫防하는 동시에, 다시 發展的인 最良의 情報를 生産하도록 하기 위한 效果的인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 必然的인 要求이다. 「文獻情報學」은 이러한 要求에 對應하는 學問體系이다.

4. 「文獻情報學」은 從來의 圖書館學에서 情報科學의 理論과 方法論을 導入하므로써, 새로운 學問體系를 形成하는 것을 意味한다.

5. 「文獻情報學」은 知識이나 科學의 要因으로서의 情報의 效果的인 利用과 이로 因한 發展的인 새로운 情報의 生産을 위해서, 이미 發生된 情報資料를 認識하고 蒐集, 組織, 蓄積, 運用하는데 관한 效果的인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規定한다.

Transformation of Library Science into Biblioinformation Science

By Pil-mo Zung*

Some traditional definitions of information are examined to seek for the mutual concept of them. Mun-hun(文獻, biblio) is defined to clarify its modernized concept. Transformation of library science into Biblio-information science, with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cience, are maintained. The results mentioned above are as the followings;

1. The mutual concept of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factor which gives the motivations of certain perception and thinking to the brain of which is the central center of thinking and behavior of man, and as the factor of knowledge and science.

2. Mun-hun(文獻) means originally "books and wise men". It is elucidated that books mean recorded information, and wise men mean oral information. And so, mun-hun means composite information.

3. It is the inevitable ne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means and methods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best information in a great information flow, and for the recreation of the more advanced information. Biblio information science should be the science to meet the need.

4. Biblio information science should be formed with the application of library science and information science.

5. Biblio information science can be defined as a scienc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means and methods of selection, processing, accumulation and use of information materials, for the recreation of the more advanced informati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hung-ang University